

9일 Market Index			
코스피	5251.87	코스닥	1102.28
	(-333.00)		(-52.39)
금리	3.420	환율	1491.45
	(+0.193)		(+15.05)

metro® 경제



중동전쟁 후폭풍... 실물경제 확산 차단 총력

美-이란 전쟁 장기화 조짐
환율 17년만에 1500원 선 눈앞
국제유가 결국 100달러대 진입
코스피 5.96% 하락한 5251.87
장중 8% 하락 '서킷브레이커'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후 코스피는 전 거래일(5584.87) 대비 333.00포인트(5.96%) 내린 5251.87에 마감했다. /뉴시스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900원대로 올라섰다. 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7년 만의 최고치를 찍는 등 국내 주요 지표가 외부 충격에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졌다. 9일 기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몰고 온 후폭풍이다.

이번 사태에서 현재까지 휴전의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애초 단기간 승부를 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언은 무색해졌다. 이란은 이웃 국가에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 파괴를 예고하는 등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2026년 중동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공산이 커졌다. 이 같은 상황을 즉각 반영한 국내 금융시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도 불구하고, 악세를 면치 못했다.

우선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6% 넘게 폭락하며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 효력 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

드카 발동 당시(오전 9시6분) 코스피 200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6.49% 내린 773.90포인트를 가리켰다.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이 정지됐다.

이어 오전 10시 31분에는 지수가 전장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돼 코스피시장의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17년 만에 처음 1500원 선에 다가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6원 오른 1493원에 거래를 시작해 이날 오전 10시22분 기준 1498.6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2009년 3월12일(장중 1500원)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9.1원 상승한 1495.5원에 마감했다.

국제유가는 결국 100달러대에 진입했다. 이날 오후 3시50분(한국시간) 기준

북해산브렌트유 선물(오는 5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 대비 16.39% 급등한 배럴당 107.88달러에 거래됐다. 미서부텍사스산원유(4월 인도분) 선물 가격 역시 15.27% 뛰며 104.78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900.65원에 달했다. 이는 근 4년 사이 가장 비싼 수준이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서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삼성SDI 피지컬 AI에 적용할 전고체 배터리 공개

삼성SDI가 피지컬 인공지능(AI)용으로 개발 중인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처음 공개하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력을 선보인다.

삼성SDI는 오는 11일부터 서울간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6'에 참가해 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 AI'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 중인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최초로 일반에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력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로봇은 배터리 탑재 공간이 제한적인 만큼 높은 에너지 밀도와 긴 사용 시간, 순간 전력 피크 대응 능력 등이 요구된다. 삼성SDI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 피지컬 AI용으로 높은 안전성과 출력 성능을 갖춘 전고체 배터리를 제시하는 동시에 경량화를 위한 파우치형 폼팩터도 개발하고 있다.

인터배터리서 샘플 첫 공개 안전성·출력 성능 높이고 경량화 위한 파우치형 개발

그동안 전기차용 각종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해 온 삼성SDI는 폼팩터 다변화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해 항공 시스템,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용 고출력 배터리도 전시한다. 전시 부스 중앙에는 실제 IT 기업의 데이터센터 내부를 구현한 공간을 마련하고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배터리 'U8A1'을 탑재한 UPS 모형을 배치했다.

U8A1은 각종 배터리 폼팩터에 리튬망간산화물(LMO) 소재를 적용해 고출력 성능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제품이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통해 기존 대비 공간 효율을 약 33% 높여 적은 수의 배터리로도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정전 등 비상시에만 작동하는 일반적인 UPS용 배터리와는 달리 AI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전력 품질을 안정화하는 기능도 있어 UPS 고객들의 수요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서 AI 시대의 모든 가능성을 삼성SDI의 배터리 기술로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오랜 시간 축적해 온 기술력을 기반으로 AI 시대에 걸맞은 고품질 배터리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



metro

“중동發 위기, 최악의 상황 염두... 선제 대응책 마련”

李 대통령, 비상경제점검회의 “호르무즈 경유 않는 공급선 발굴 주유소 매점매석 등 철저히 단속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이 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급등하고 있는 국내 석유 가격과 관련해 최고가격제를 신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중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도록 고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급등하는 유가를 잠재우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갖고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 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유사 등의 담합 여부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면서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척결을 위한 현장 점검 등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이 대통령, 칠레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정일영 의원 특사 파견 /사진 뉴시스
- ▲국방부, 주한미군 차출실에 “미군과 상시적 상호소통”

- ▲시민단체, 방송인 김어준 경찰 고발...“김민석 총리 명예훼손”
- ▲김정은, 리설주·김주애와 국제부녀절 공연 관람

- ▲美 디플로맷 “李, 전임 대통령들과 다르다”... 60% 지지율 ‘찬사’
- ▲박형준, 부산시장 3선 도전...“보수는 위기, 독재 막겠다”